

어린이날 개장 레고랜드, 테마열차 운행 시작

5월5일 어린이날 공식 개장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2일 레고랜드 테마열차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레고랜드 테마열차는 열차 내외부를 레고랜드를 포함한 어린이의 주요 명소 이미지로 꾸몄다. 9월21일까지 5개월간 용산-춘천간 ITX 청춘노선을 운행한다.



“아낌없는 지원” 부영그룹의 남다른 태권도 사랑

“태권도 세계화 앞장...민간외교로 위상 높여”

제12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다인 총 63개국, 1000여 명의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2007년 이후 15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열린 대회였다.

고양 세계품새선수권대회는 2020년 덴마크 헤르닝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탓에 2018년 대만 타이베이 이후 4년 만이자, 2019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세계태권도연맹(WT·총재 조정원)이 직접 주최한 대회라는 의미가 더해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화제를 뿌렸다.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던 세계품새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국내 그룹이 있다. 바로 부영그룹이다.

세계태권도연맹에 1000만 달러 후원 선수 육성·국제대회 지원 등에 쓰여 미얀마 등에 태권도 훈련센터도 건립 다양한 분야서 사회나눔 활동 펼쳐

●6년간 1000만 달러 후원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는 2028년 미국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잡았다. WT가 20일 고양에서 열린 화상 집행위원회를 통해 물디브를 212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면서 WT는 국제경기 연맹 중 탁구(227개국), 배구(222개국), 육상(214개국)에 이어 농구와 함께 4번째로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원조 한류'격인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탁월한 위상을 수립하기까지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2015년까지 WT와 함께 했던 삼성전자가 후원을 중단하면서 WT는 위기에 처했고, 이때 WT에 선포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부영그룹이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영그룹의 후원이 결정적 힘이 됐다. 월드 챔피언십 2019 대회의 모습(위 사진)과 2018년 부영그룹이 건립 지원한 미얀마 양곤 태권도 훈련센터의 개관식. 사진제공 | 부영그룹

단하면서 WT는 위기에 처했고, 이때 WT에 선포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부영그룹이었다.

삼성전자 이후 국내 대기업들의 태권도 후원은 전무했지만 부영그룹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글로벌 스폰서를 맡았고, 부영그룹의 도움은 WT가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

상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부영그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WT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1000만 달러(123억8000만 원)를 후원했다. WT에 후원한 기금은 각각 태권도 우수선수 육성, 태권도협회 지원, 태권도 국제대회 지원, 장애인 태권도 발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여 국내·외 태권도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영그룹은 WT를 통한 후원 뿐 아니라 태권도 한류 확산에 직접 팔을 걷어 붙이기도 했다. WT 후원 이전인 200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태권도 훈련센터 건립기금을 지원했고, 2012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1000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부영 크메르 태권도훈련센터'를 건립해 기증하기도 했다. WT와 연을 맺은 이후인 2018년 12월에는 미얀마에 태권도 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스포츠 훈련 지원이 부족했던 이들 국가에 부영그룹이 뿌린 씨앗은 곧바로 큰 열매로 이어지기도 했다. 캄보디아 태권도 국가대표 손 시브메이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캄보디아 아시안게임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중근 회장,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

부영그룹의 남다른 태권도 사랑과 아낌없는 후원에는 이중근 회장의 뜻이 담겨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16년부터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맡아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고 세계 각국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태권도 세계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시설 지원 및 학술, 재난구호, 성금 기탁, 군부대 지원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 사업을 통한 사회 나눔도 시작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기부한 금액은 총 8900억 원에 이르며, 2014년에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높여라” SSG닷컴-CJ제일제당 업무협약



황윤기 SSG닷컴 상품본부장(왼쪽)과 김현진 CJ제일제당 디지털사업본부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SSG닷컴

SSG닷컴과 CJ제일제당이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동의 매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브랜드 단위의 전략 과제를 수립한다. 비비고

와 햇반 등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를 적극 입점시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 차별화된 온라인 장보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5일 CJ제일제당의 블라섬 브랜드관 '비비고'를 오픈한다. 블라섬 브랜드관은 SSG닷컴 공식 브랜드관의 상위 개념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 일종의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다.

SSG닷컴의 썬배송(당일 시간대 지정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만날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또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고, 월 단위로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신상품 알리기에 도 나선다.

블라섬 브랜드관 오픈 기념으로 5월4일까지 CJ제일제당 상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황윤기 SSG닷컴 상품본부장은 “CJ제일제당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온라인 장보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산업의 선도 기업과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독자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장욱 기자 jjay@donga.com

NS홈쇼핑 '강원도 인제 기린농협 산나물' 방송

NS홈쇼핑이 25일 오후 3시 20분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강원도 인제 기린농협 산나물세트'를 방송한다. 명이나물 700g, 눈개승마나물 700g, 곰취나물 300g, 참취나물 300g을 비롯해 절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용 소스 2kg으로 구성했다.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신선한 산나물을 맛볼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 소득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서울관광재단, 비짓서울TV 4주년 이벤트

서울관광재단은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VisitSeoul TV)의 개국 4주년을 맞아 전 세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1일까지 이벤트 영상을 시청하고 서울 관련 퀴즈를 맞춘 사람 중 26명에게 애플 에어팟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비짓서울TV'는 2019년 4월23일에 개국해 현재 약 4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 소울 서울(My Soul, Seoul)'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의 산, 액티비티, 음식, 음악 등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

롯데 “장애인 고용 증진으로 다양성 존중 앞장”



롯데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고용증진 및 ESG경영실천 공동 협약·선언식'에 장애인 고용 우수사로 참석했다. 롯데는 2019년부터 전사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 또 그룹 슬로건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의 디지털 광고(사진) 속 모델을 다양한 직업군의 장애인으로 구성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로운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 '1조'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수주

(서울 강동구)

국내 리모델링 사상 최대 규모 각사 최고 기술력과 노하우 결합 “한강변 고급 주거단지 실현할 것”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총 공사비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랜드마크사업단)은 23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선사현대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상암로 11 일원 약 6만899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 동 2938세대의 대단지로 국내 리모델링 사상 최대 규모다. 수평중축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하 5층~지상 29층 16개 동 3328세대로 탈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한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총 공사비가 1조 원을 훌쩍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사진제공 | 롯데건설

바꿈하게 된다. 공사비는 총 1조 900억 원 수준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부족했던 주차시설과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이 충족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랜드마크사업단은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단지명을 '리버티 강동'으로 제안했다. 'River(강)'와 'Heritage(유산)', 'Prestige(고급)' 등의 단어를 합성했으며 한강변의 풍광과 현대적 건축 유산의 품격을 더해 고품격 주거단지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사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랜드마크 고급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평면을 구성한 최신 트렌드의 특화 설계를 기획했다. 더 넓어진 평면에 조망형 창호를 적용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북측형 스카이 커뮤니티 3곳과 인더어 플랫폼,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등 입주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도록 조경디자인 역량도 총동원한다. 6개의 테마가든을 조성하고, 단지를 통하는 3.3km 산책로는 한강 광나루공원과 연결해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강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강변 대단지라는 장점을 살린 고품격 주거공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고, 앞으로도 사업지 특성에 맞는 선별적 수주전략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해 용산구 이촌현대, 양천구 목동2차우성, 수원 권선 삼천리2차에 이어 올해 1월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